

## 제주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양상 연구\*

서영숙\*\*

### 〈목 차〉

- I. 머리말
- II. 제주 서사민요의 유형별 분포와 특징
- III. 제주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제주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양상을 유형별 분포양상과 특징, 광포유형의 변형과 지역유형의 창의, 다른 서사갈래와의 교섭과 융합 양상을 통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제주 지역에서는 육지 지역만큼 다양한 서사민요 유형이 전승되지 않으며, 그 대신 일부 소수 유형이 집중적으로 불림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유형은 대체로 한 가지 사건에서 일어난 특정한 장면에만 대한 묘사가 두드러지는 단편 서사민요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체로 비극적이기보다는 희극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이는 서사민요를 부르는 작업방식이나 가창방식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 특유의 독립적 가족 구조와 생활양식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제주 지역 서사민요는 육지 지역 서사민요와의 교섭 속에서 창작·전승되기보다는 육지 지역 서사민요와는 별도의 독자적 서사민요권을 형성해 온 것으로 추정하였다. 육지 지역에서 널리 전승되는 광포유형이 몇 유형 있기는 하지만, 그리 활발하게 불리지 못했으며, 부른다 할지라도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변형함으로써 지역문학으로서의 개성을 갖추고 있다. 오히려 제주 지역 서사민요는 서사민요보다는 다른 서사 갈래와의 교섭과 융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즉 육지 지역에서 널리 전승되는 광포유형 설화를 변형함으로써 지역의 서사민요로 재창조할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에서 전승되는 설화나 서사무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유형을 창작하는 데에까지 나아갔다. 이는 서사민요가 풍부하지 않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7-A00383)

\*\* 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있던 제주 지역에서 새롭게 서사민요를 창출했던 방식으로, 제주 지역 여성들의 뛰어난 문학적 창작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제주, 서사민요, 전승, 광포유형, 지역유형, 지역문학, 서사 갈래, 설화, 서사무가, 여성

## I. 머리말

서사민요는 서사적 줄거리를 갖추고 있는 노래이다. 전통 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단조로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했던 기층 여성들은 일의 지루함과 고단함을 덜기 위하여 서사민요를 불렀다. 뿐만 아니라 서사민요를 통해 삶 속에서 맺었던 응어리를 풀어내고,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꿈을 그려냈다. 그러므로 기층 여성들에게 있어 서사민요는 삶과 노동을 지속하게 하는 놀이이자 도구였다.

지금까지 서사민요는 영남과 호남 등 육지 지역이 중심 전승 지역으로 여겨져 왔고, 서사민요의 연구 역시 육지 지역 서사민요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sup>1)</sup> 게다가 제주 지역 민요의 경우 <맷돌·방아노래>, <해녀노래> 등 문학성과 음악성이 풍부한 서정민요가 활발하게 조사·연구되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서사민요는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sup>2)</sup> 그러다보니 제주 지역 서사민요의 실상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된 바가 없어, 제주 지역은 마치 서사민요의 불모지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이에 제주 지역은 과연 서사민요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육지 지역과 어

1) 서사민요 연구는 조동일이 『서사민요 연구』에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서사민요의 전반적 특징을 밝힌 이래, 본인에 의해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서울·경기 지역 등의 전승양상이 지속적으로 연구돼 왔다. 그 결과 서사민요는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창작·전승되며,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창작과 전승이 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참고, 『서사민요의 지역문화적 성격: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32(한국시가학회, 2012), 123~150쪽; 『서울·경기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양상과 문화적 특질』, 『한국민요학』 제35집(한국민요학회, 2012), 95~130쪽 등 참조.

2) 제주도 민요는 김영돈의 『제주도 민요연구』 하(이론편) 이후, 조영배, 좌혜경, 양영자, 이성훈 등에 의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서사민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편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제주 지역은 육지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구비문학의 창작과 전승에 있어 독특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 지역 서사민요에 대한 연구는 서사민요의 창작과 전승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 연구를 위해 우선 제주 지역에서 조사된 구비문학 자료집 중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민요 연구』 상(자료편), 『백록어문』 및 기타 자료집<sup>3)</sup>을 대상으로 서사민요를 추출한 뒤, 본인이 개발한 인물 관계 유형분류 방법에 의해 유형을 분류할 것이다.<sup>4)</sup>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제주 지역 서사민요의 유형별 분포와 특징을 고찰하고, 제주 지역 서사민요가 지니고 있는 전승적 특질을 살필 것이다. 이는 특히 제주 지역 서사민요와 육지 지역 서사민요의 비교를 통해 제주 지역이 육지 지역과 공유하고 있는 광포 유형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변형하고 있는지, 제주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역 유형들을 창작·전승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 II. 제주 서사민요의 유형별 분포와 특징

이 장에서는 제주 지역 서사민요의 유형별 분포와 특징을 살핀다. 특히 제주

3) 『한국구비문학대계』(총85권)(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한국민요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편, (주)문화방송, 1993~1996을 주자료집으로 하고, 기타 자료집은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상(자료편)(민속원, 1965 초판, 2002 개정판); 『백록어문』 1집~19집(학술조사보고)(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1986~2004); 진성기, 『남국의 민요: 제주도민요집』(제주민속연구소, 1958 초판, 1991 7판) 등을 활용한다. 인용시 약호는 주자료집은 각기 ‘백록’, ‘구비대계’, ‘민요대전’으로 표기하고, 기타 자료집은 체록자명으로 표기한 뒤, 해당 문헌의 자료번호 또는 인용페이지를 밝힌다.

4) 서사민요는 한국민요의 기능별 분류체계에서 ‘비기능요’로 분류되었을 뿐, 뚜렷한 분류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박경수, 『한국민요의 기능별 분류체계』,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III)(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그러나 서사민요의 경우 기능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서사요소에 의한 별도의 분류기준이 필요하다. 본인은 서사민요의 유형을 주인공과 상대인물의 관계, 핵심 사건에 따라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민요대전』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류를 시도한 바 있다. 앞으로 서사민요의 유형분류체계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 줄재, 『한국서사민요의 낱실과 씨실: 우리어머니들의 노래』(도서출판 역락, 2009), 47~75쪽.

지역에는 어떤 유형의 서사민요가 전승되고 전승되지 않는지, 제주 지역 서사민요의 전반적 특징은 무엇인지 등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제주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양상에 대한 개괄적 고찰에 초점을 두므로 유형이나 작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추후의 논문으로 미룬다.

제주 지역에서 조사된 서사민요 96편의 유형별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유형		제주	계
시집식구-머느리	Aa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중이 되는 머느리	북제주군 추자면153(백록8)	1
	Ac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한탄하는 머느리	표선면 성음리466(김영돈), 한림읍 월령리1038(김영돈), 제주시 삼도동41(3)(구비대계)	3
	Ad 실수로 그릇 깬 머느리	조선민요집성320(김사엽외)	1
	Ae 병어리라고 쫓겨나 꿩노래 부른 머느리	구좌2-8(2)(민요대전), 서귀읍 서호리494(김영돈), 안덕면 동광리121(진성기), 대정읍 일과리321(백록14)	4
	Ai 시집살이 호소하는 사촌형님	대정읍6(구비대계), 서귀포시 안덕면130(구비대계), 제주시 삼도동17(구비대계), 제주시 삼도동43(구비대계), 구라읍 종달리338(백록16), 구라읍 종달리339(백록16), 구좌읍 한동리233(백록11), 애월읍 금덕리236(백록12), 대정읍 일과리282(백록14), 대정읍 일과리283(백록14), 대정읍 하모3리240(백록15), 북제주군 장천리451(백록18,19), 제주시 내도동271(백록17), 제주시 봉개동 회천리237(백록10), 조선민요집성320(김사엽 외)	15
	Al 시부모에게 말대꾸하는 머느리	대정읍 영락리478(김영돈)	1
남편-아내-첩	Ba 진주낭군이 기생첩과 놀자 자살하는 아내	대정읍 일과리319(백록14)	1
	Bc 남편이 죽자 한탄하는 아내	북제주군 추자면154(백록 8)	1
	Ja 첩의 집을 찾아간 본처	제주시 삼도동36(구비대계), 서귀포시 표선면 14(구비대계), 표선5-2(대전), 제주시 이도동569(김영돈), 북제주군 장천2리178(백록18,19), 조천읍 선흘1리113(백록10), 표선면 하천리50(진성기), 조선민요집성331(김사엽외)	8
	Jc 첩이 죽자 기뻐하는 본처	제주시 이도동576(김영돈), 제주시 삼도동989(김영돈)	2

친정식 구-딸	Ca 어머니 묘를 찾아가는 딸	제주시 용담동308(김영돈), 북제주군 추자면155(백록8)	2
	Ea 오빠에게 부정을 의심받은 동생	제주시 삼도2동1363(김영돈)	1
남녀	Gd 혼인날 얘기 낳은 신부	조천면 함덕리1352(김영돈)	1
	Hc 주머니를 걸어 놓고 남자 유혹하는 처녀	서귀포시5(구비대계), 중문면 도순리1355(김영돈), 제주시 건입동1356(김영돈), 성산면 성산리1357(김영돈), 조천면 함덕리1368(김영돈), 성산면 온평리1354(김영돈), 제주민요집112(김영삼), 애월면 금성리1170(김영돈)	8
	Hh 세 남자를 만난 뒤 아이 낳은 여자	제주시 삼도동41(1)(구비대계)	1
기타 사람	Ia-2 죽은 후 이승에 다녀간 여자	한경면 고산리(서영숙)	1
	Ia 베를 짜는 여자	서귀포시 안덕면10(구비대계), 서귀포시 안덕면100(구비대계), 서귀포시 안덕면30(구비대계), 한경면 신창리1139(김영돈), 한경면 신창리1140(김영돈), 한림읍 귀덕리1141(김영돈)	6
	If 가족이 모두 죽자 한탄하는 사람	서귀포6-16(민요대전), 서귀포7-3(민요대전)	2
	Ig 밥이 적자 화를 내는 가족	애월9-18(민요대전), 북제주군 장천리449(백록18,19)	2
	Ih 망할 조짐이 나타난 집안	제주시 삼도동41(2)(구비대계), 제주시 삼도동16(구비대계), 서귀포시 안덕면142(구비대계), 조천면 조천리1365(김영돈), 한경면 신창리420(김영돈), 조천면 선흘1리113(백록10), 제주시 삼도동36(2)(김영돈), 봉개동 회천리242(백록10)	8
동물	Na 콩을 주워먹고 사는 꿩	애월9-17(민요대전), 북제주군 장천리452(백록18,19), 제주시 아라동1256(김영돈), 조천1-10(민요대전), 서귀포7-4(민요대전), 서귀포시4(구비대계), 서귀포시 안덕면9(구비대계), 표선면 표선리207(진성기), 구좌면 송당리1252(김영돈), 한림읍 귀덕리1253(김영돈), 제주시 이도동1254(김영돈), 한림읍 귀덕리1255(김영돈), 성산면 온평리1257(김영돈), 서귀읍 법환리1258(김영돈),	14
	Nc 꿈에 삼촌이 죽는 것을 본 생선	구좌2-8(1)(민요대전), 애월면 고내리149(진성기), 제주민요집37(김영삼), 조천면 함덕리1295(김영돈), 조천면 신촌리1296(김영돈), 한경면 신창리1297(김영돈), 제주시 건입동1298(김영돈), 성산면 온평리1299(김영돈)	8
기타	설화의 서사민요화	대정읍 영락리1372(세털웃신랑)(김영돈), 제주시 삼도동48(김영굴전설)(구비대계), 제주시 삼도동15(2)(마라도전설)(구비대계), 서귀포시 대정읍2(마라도전설)(구비대계), 제주시 삼도동15(1)(진시황전설)(구비대계)	5
계			96

제주 지역에서 불리는 서사민요 유형은 그리 다양하지 않다. 지금까지 필자가 추출한 서사민요 유형 총 61개 유형(제주 지역 유형 포함, 기타 유형 제외) 중에서 22개 유형만 조사되었다. 이중에서도 1~2편만 전승되는 것이 13개 유형이어서 이를 제외한다면 제주 지역에는 9개 유형이 비교적 서사민요 유형으로서 안정되게 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형별로 1~2편만 조사된 것은 한 두 창자에 의해서 구연되기는 했지만, 서사민요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큼 다른 창자들에게 제대로 전승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주 지역에서는 육지 지역만큼 다양한 서사민요 유형이 전승되지 않으며, 그 대신 일부 소수 유형이 집중적으로 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주 지역에서 3편 이상 불리는 9개 서사민요 유형의 편수와 비중은 다음과 같다. 비교를 위해 ( )안에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조사된 서사민요 편수와 비중을 적는다. 본인이 추출한 전국 서사민요는 총 1,667편이다.

- Ac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한탄하는 며느리 : 3편/3.13% (38편/2.28%)
- Ae 병어리라고 쫓겨나 꿩노래 부른 며느리 : 4편/4.17% (11편/0.66%)
- Ai 시집살이 호소하는 사촌형님 : 15편/15.63% (111편/6.66%)
- Hc 주머니 만들어 남자를 유혹하는 처녀 : 8편/8.33% (48편/2.88%)
- Ja 첩의 집에 찾아가는 본처 : 8편/8.33% (33편/1.98%)
- Ld 배를 짜는 여자 : 6편/6.25% (190편/11.40%)
- Lh 망할 조집이 나타난 집안 : 8편/8.33% (8편/0.48%)
- Na 콩을 주워먹고 사는 꿩 : 14편/14.58% (33편/1.98%)
- Nc 꿈에 삼촌이 죽는 것을 본 생선 : 8편/8.33% (8편/0.48%)

이를 보면 제주 지역에서는 대체로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장편 서사민요 유형보다는 한 가지 사건에서 일어난 특정한 장면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지는 단편 서사민요 유형이 많이 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Ac 유형의 경우 시집식구의 구박에 시집식구를 동물, 특히 물고기에 비유하면서 한탄하고 있고, Ae 유형의 경우 꿩의 각 부위에 시집식구를 대입시켜 시집식구에 대한 자신의 감

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Ai 유형의 경우 사촌형님과 동생의 대화를 통해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시집식구에 대한 원망을 극적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한다. Ja 유형의 경우도 첩의 집에 싸우러 가지만 첩의 상냥한 태도에 그대로 돌아오고 마는 본처의 모습을 짙막한 장면묘사를 통해 보여준다. 해와 달 등으로 곱게 수놓은 주머니의 모습(Hc 유형), 베를 각 부분의 작동 모습(Ld 유형), 부잣집에 나타난 망할 조짐의 모습(Lh 유형), 화려한 자태를 지닌 꿩의 모습(Na 유형), 생선의 죽음을 암시하는 꿈의 장면(Nc 유형) 등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통해 사건의 한 장면을 전경화해 제시한다.

이는 서사민요를 육지 지역에서는 대체로 혼자 길쌈을 하거나 밭을 매면서 독창으로 부르는데 비해, 제주 지역에서는 맷돌을 돌리거나 방아를 쪼거나 노를 젓는 등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작업하면서 선후창 또는 교환창으로 부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혼자 작업하면서 부르는 경우 사건을 길게 서사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럿이 함께 돌아가면서 부르는 경우에는 단편적 장면을 집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짧게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주 지역에서는 특히 ‘수놓음’이라고 하여 김매기나 밭밟기, 꿀베기 같은 농사일을 공동 작업으로 해결했다.<sup>5)</sup> 수놓음에 의해 집단적으로 행해진 작업에서 노래를 부를 경우, 일의 리듬과 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좀 더 신명나는 노래가 불리기 마련이다.<sup>6)</sup> 제주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서사민요가 그리 풍부하게 전승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작업 방식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편 육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 지역에서도 시집살이 관련 서사민요가 총 22편, 22.9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육지 지역에서는 시집살이의 고난이 다양한 비극적 유형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 제주 지역에서는 Ae 유형과 Ai 유형만 집중적으로 불린다. Ae 유형은 말을 안 해 병어리라고 쫓겨났던 며느리가 꿩노래를 불러 다시 돌아온다는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져 있고, Ai 유형은 시집살이의 고난을 율기보다는 시집식구를 동물의 모습에 비유

5) 양영자, 『세시풍속과 전승민요』, 『제주여성 전승문화』(제주도, 2004), 35~36쪽.

6) 위의 글, 67쪽.

하는 해학적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시집살이의 고난을 읊은 비극적 유형이 잘 전승되지 않는 것은 제주 지역 여성의 삶의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제주 지역의 가족 구조는 육지 지역과는 달리 부모와 더불어 대가족이 묶여 살기보다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부부는 자식들대로 독립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보통이다.<sup>7)</sup> 자식이 혼인하면 분가를 시키면서 집, 경작지, 살림 도구 등 모든 것을 갈라서 나누어준다. 이는 장남에서부터 모든 이들에게 마찬가지로 시집식구와 며느리 사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sup>8)</sup> 또한 제주 지역에서는 대체로 촌락 안이나 부근의 촌락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근처혼’이 보편화 되어 있어서,<sup>9)</sup> 제주 지역 여성들은 혼인으로 인한 친정식구와의 분리를 그리 심각한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게다가 혼인을 하고서도 ‘왔다갔다 하는 기간’이라 하여 친정을 쉽게 오갔으며, 첫아이를 낳을 때까지 친정에 가서 살기도 했다.<sup>10)</sup> 또한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결코 낮게 여겨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오히려 육지 지역에 비해 첩의 문제를 다룬 Ja 유형이 많이 전승되는 것은 제주 지역에서는 시집식구와 며느리의 갈등보다 남편을 둘러싼 첩과 본처의 갈등이 더 컸음을 보여준다. 제주 지역에서는 명절이나 기제사 때 메를 3기까지 차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부인을 둘이나 셋 두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성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해촌 마을에서는 시어머니가 큰며느리와 의견이 맞지 않거나 며느리가 물질을 잘 못해서 돈을 못 벌어서 올 경우 물질 잘하는 작은각시(첩)를 들이는 풍습이 있었다.<sup>11)</sup> 그러므로 큰각시(본처)가 작은각시와 남편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 첩의 집에 ‘툃으러(싸우러)’ 가는 Ja 유형을 많이 부르게 된 것은 이러한 현실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7) 현승환, 『제주인의 일생』 제주 민속문화 6(국립민속박물관, 2007), 58~62쪽.

8) 『한국의 발견-제주도』(뿌리깊은 나무, 1992), 178~187쪽.

9) 김영돈 외, 『제주의 민속』 I 세시풍속, 통과례, 전승연희(제주도, 1993), 288쪽.

10) 현승환, 앞의 책, 62쪽.

11) 양영자, 앞의 글, 32~35쪽.



이외에 친정식구-딸의 관계나 오빠-동생 관계, 부모-자식 관계, 신랑-신부 관계, 총각-처녀 관계의 서사민요도 이따금 한두 편 조사되었을 뿐 거의 전승되지 않는다. 육지 지역에서 흔하게 불리는 Ba 진주낭군이 기생첩과 놀자 자살하는 아내(진주낭군), Ca 어머니 묘를 찾아가는 딸(타박네야), Cb 친정부모 장례에 가는 딸(친정부고), Ea 오빠에게 부정을 의심받은 동생(쌍가락지), Mb 쥐가 남긴 밤을 나눠먹는 사람(달강달강) 등조차도 한두 편 정도만 조사되었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는 서사민요의 전승에 있어서 제주 지역은 육지 지역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그만큼 제주 지역이 육지와 멀리 떨어져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서사민요가 그리 풍부하게 전승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이기도 하다. 즉 제주 지역 여성들은 거센 파도와 싸우며 물을 헤쳐 나가거나, 맷돌이나 방아질을 하면서 여럿이 함께 공동 작업을 했기 때문에 긴 서사민요보다는 짧은 서정민요를 많이 불렀다. 서사민요라 할지라도 사건을 길고 복잡하게 이어나가기보다는 핵심사건을 중심으로 장면을 보여주는 서정적 성향이 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라 할 수 있다.

한편 제주 지역 서사민요에서 주목할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보다 동물과 동물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 서사민요가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동물과 동물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 서사민요로는 Na 콩을 주워먹고 사는 꿩(꿩타령)과 Nc 꿈에 죽은 것을 본 생선(우럭삼춘)을 들 수 있다. Na 유형의 경우 가사 <자치가>나 소설 <장끼전> 등의 다양한 서사 갈래로도 전승되고 있어 그 형성과정에 대한 논쟁의 실마리를 안고 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 Na 유형이 가장 다양한 하위유형을 형성하며 활발히 전승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울 만큼 뛰어난 서사적 짜임새를 갖춘 각편들이 많이 조사되어 있어 주목된다. 흥미로운 것은 Nc 유형 역시 Na 유형과 같은 꿈 이야기를 소재로 서사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Na 유형이 남편 장끼의 죽음을 아내 까투리가 꿈을 통해 예견한다면, Nc 유형은 삼춘 우럭의 죽음을 조카가 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Na 유형은 육지와 전승을 공유하는 것으로 어

느 쪽이 먼저 생성되었는지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Nc 유형의 경우는 제주 지역의 고유 유형으로 Na 유형의 활발한 전승에 힘입어 비슷한 방식으로 창조해 낸 것이 아닐까 한다.

이외에도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 지역의 고유한 신화나 전설을 서사민요화하여 부르거나, 육지 지역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민담을 서사민요로 부르는 양상이 많이 나타나 서사민요 창작의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육지 지역 서사민요와의 교섭이 없는 가운데, 새로운 서사민요를 창작하는 데 있어 같은 서사 갈래를 참조하는 것이 수월한 방법이였기 때문일 것이다. 신화나 전설을 서사민요로 부른 것으로는 <마라도 전설 노래>, <김녕굴 전설 노래>, <진시황 전설 노래> 등이 있다. 이중 <마라도 전설 노래>와 <진시황 전설 노래> 등을 부른 김영부의 경우 어렸을 때 이 이야기들을 아버지나 동네 할아버지에게서 들었고, 이를 맷돌·방아노래나 노젓는 노래의 사설로 부른 것이라 한다.<sup>12)</sup> 그러나 이러한 전설 노래들은 뛰어난 개인 창자에 의해 창작된 이후 거의 다른 사람에게 전승되지 못함으로써 서사민요 유형으로서 보편화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lh 망할 조짐이 나타난 집안(가시오름 강당장집)과 같은 것은 제주 지역의 <장자못 전설>과 유사한 것으로서, 맷돌·방아 노래에 거의 전형화된 사설로 나올 만큼 보편적인 서사민요 유형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시부모에게 말대꾸한 며느리>, <홍씨 성이 생겨난 유래>와 같은 설화를 서사민요로 부른 것도 조사돼 있어, 제주 지역은 전승되는 서사민요 유형이 적은 대신 뛰어난 창자에 의해 자생적으로 창작되는 서사민요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제주의 지역유형이라 할 만한 것들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핀다.

12) 2013년 2월 12일 제주도의 양영자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들 노래의 창자인 김영부(여 87세, 제주도 서귀포시 내정읍 하모리) 할머니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 지면을 통해 양영자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Ⅲ. 제주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징

서사민요는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새롭게 창작되고 변이되며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왔다. 이때 서사민요는 지역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모티프가 되어 창의적으로 생성되기도 하고, 다른 지역 서사민요나 다른 서사갈래와의 교섭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융합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제주 지역 서사민요가 육지 지역 서사민요 또는 다른 서사갈래와 어떻게 교섭하고 융합하면서 지역 특유의 서사민요를 창작·전승해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1. 광포유형의 변형과 지역유형의 창

서사민요의 유형은 전국적으로 널리 전승되는 광포유형과 어느 특정 지역에 만 전승되는 지역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서사민요의 전승 지역을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서울·경기, 제주의 6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중 두 지역 이상에서 전승되는 유형을 광포 유형, 한 지역에서만 전승되거나 두 지역 이상에서 전승되더라도 한 지역에서만 특히 큰 비중으로 전승되는 유형을 지역유형이라 보면, 제주 지역에서 전승되는 서사민요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광포 유형	Aa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중이 되는 며느리, Ac 시집식구가 구박하자 한탄하는 며느리, Ad 실수로 그릇 깨는 며느리, Ai 시집살이 호소하는 사촌형님, Ba 진주낭군이 기생첩과 놀자 자살하는 아내, Bc 남편이 죽자 한탄하는 아내, Ca 어머니 묘를 찾아가는 딸, Ea 오빠에게 부정을 의심받은 동생, Gd 혼인날 얘기를 낳은 신부, Hc 주머니 걸어놓고 남자 유혹하는 처녀, Ja 첩의 집에 찾아간 본처, Jc 첩이 죽자 기뻐하는 본처, Ld 베를 짜는 여자	13
지역 유형	Ae 병어리라고 쫓겨나 꿩노래 부른 며느리(제주,호남), Al 시부모에게 말대꾸한 며느리, Hh 세 남자를 만난 뒤 아이 낳은 여자, La-2 죽은 후 이승에 다녀간 여자, Lf 가족이 모두 죽자 한탄하는 사람, Lg 밥이 적자 화를 내는 가족, Lh 망할 조짐이 나타난 집안, Na 콩을 주워먹고 사는 꿩(제주,호남), Nc 꿈에 삼촌이 죽는 것을 본 생선, 기타 마라도 전설, 기타 진시황 전설, 기타 김녕굴 전설, 기타 새털옷 신랑	9+기타 4

제주 지역에서 전승되는 유형으로 육지 지역과 함께 공유하는 광포유형은

모두 13개 유형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한두 편만 전승될 뿐 제주 지역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광포 유형으로서 제주 지역에서 3편 이상 조사된 유형은 Ai, Ac, Hc, Ja, Ld 유형뿐이다. 이중 Ld 유형은 많이 조사되긴 했지만 일부분만 파편적으로 구연될 뿐이어서 육지 지역 자료와 같은 서사민요로서의 완결성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Ai, Ac, Hc, Ja 유형은 육지 지역 자료를 수용하면서도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변형함으로써 지역문학으로서의 개성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Ai, Ac 유형에서 시집식구들의 묘사에 육지 지역 자료에서는 대부분 호랑이, 여우, 뽕족새, 할림새 등과 같은 산짐승이나 조류가 등장하는 반면, 제주 지역에서는 주로 물구렁, 뭉게(문어), 졸락(노래미), 구쟁기(소라), 즈복(전복), 메홍이(소라고동), 코생이(용치놀래기) 등과 같은 어패류가 등장한다. 이는 육지 지역에서 보편화된 상투 어구라 할지라도 제주 지역에서는 그대로 쓰이지 않고 지역 여성의 삶에 친근한 생물로 변형됨을 보여준다. 다음과 같은 각편이 좋은 예이다.

구쟁기(소라)닭은 씨아방에  
 즈복(전복)닭은 씨어명에  
 메홍이(소라고동)닭은 씨동싱에  
 코생이(용치놀래기)닭은 씨누이에  
 뭉게(문어)닭은 남편네에  
 어명항민 나살아지코  
 씨누이야 씨가령말야(시거드름 마라)  
 너도가민 씨집을간다(이하 생략)<sup>13)</sup>

여기에서 보면 구쟁기, 즈복, 메홍이, 코생이, 뭉게 등의 생태적 모습이 마치 시집식구들이 며느리에게 대하는 태도나 행위와 유사하게 인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라가 나왔다 쪽 들어가는 모습은 시아버지가 혀를 찢찢 차거나 시

13) Ac [제주시 삼도동 41(3)] 구비대계 9-2, 땃돌노래(4), 제주시 삼도동 무근성, 1980. 10. 8. 김영돈 조사, 김금련, 여 86.

동생이 돌아왔는 모습으로, 전복의 단단한 모습은 시어머니가 매몰차게 대하는 모습으로, 용치놀래기의 재빠르게 달아나는 모습은 시누이가 보로통하게 토라지는 모습으로, 문어가 여러 개의 발로 허우적대는 모습은 남편이 자신을 안으려고 귀찮게 구는 모습으로 비유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는 바닷가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어패류의 생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제주 지역 여성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비유라 할 수 있다.

Hc, Ja 유형은 사설보다는 가창방식이 제주 지역의 노동요에 맞게 변형되는 경우이다. 제주 지역에서는 서사민요를 대부분 <맷돌·방아노래>나 <해녀노래>, <보리타작 노래>, <양태 걷는 노래> 등 공동 작업을 하면서 부르는 데, 같은 사설이라 할지라도 보리타작을 하며 부를 때에는 1음보씩 나누어 부르며, 곡식을 갈거나 방아를 찧으며 부를 때에는 2음보씩 이어 부른다. 사설 뒤에는 각기 작업에 알맞은 후렴이 뒤따르는데, 보리타작을 할 때에는 “어야 흥” 하는 1음보의 후렴이, 맷돌질을 할 때에는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하는 2음보의 후렴이 붙는다. 이는 육지 지역에서 길쌈이나 밭매기를 하면서 독창으로 후렴 없이 4음보 정도의 불규칙한 음보로 불리던 서사민요가 제주 지역에서 선후창 또는 교환창 노동요의 사설로 적절하게 변형된 결과라 할 수 있다. Ja 유형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산알각시 어야 흥
- 시앗이긋언(긋어서) 어야 흥
- 산뒤에랑 어야 흥
- 튼으레가난(싸우러가니) 어야 흥
- 가름밭디(갈이는 밭에) 어야 흥
- 메마꽃가찌(메꽃같이) 어야 흥
- 어허덩씩 어야 흥
- 나왔아서 어야 흥
- 내눈에랑 어야 흥
- 요만할적 어야 흥

님의눈에 어야 흥  
 아니들라 어야 흥  
 허어도 흥 어야 흥<sup>14)</sup>

씨앗이엔 튼으렌가난(시앗이라고 싸우러가니)  
 같은밭디 메마꽃 ㄹ찌(간 밭에 메꽃같이)  
 희번듯이 나 아서라(번듯하게 내앉았다라)  
 나여히에 요만이고난(나보기에 요만큼고우면)  
 입여히엔 언매나중으카(입보기엔 얼마나중을까)  
 이여이여 이여도 흥라(이하 생략)<sup>15)</sup>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첩노래>인데도 앞의 것은 보리타작을 하면서 불렀고 뒤의 것은 맷돌질을 하면서 불렀다. 이에 따라 사설이 앞에서는 1음보로 짧게 끊어지며, 뒤에서는 2음보씩으로 되어 있다. 보리타작을 할 때에는 동작이 빠르고 힘이 많이 들므로 사설을 길게 이어나가기 힘든 반면, 맷돌질을 할 때에는 맷돌을 천천히 돌리며 비교적 힘이 적게 들므로 긴 사설을 이어나가기가 용이하다.

한편 제주 지역에서는 육지 지역에서 널리 불리는 광포유형보다는 제주 지역에서만 전승되는 지역 유형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유형의 경우에는 호남 지역과 공유하고 있기도 하나, 이는 제주 지역이 오랜 세월 호남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호남과의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이라 생각된다.<sup>16)</sup> 우선 호남 지역과 공유하고 있는 지역유형으로는 Ae, Na 유형이 있다. Ae 유형은 제주에서 4편(4.17%), 호남에서 6편(1.30%),

14) Ja [표선 5-2] 민요대전 제주, 보리타작소리(마당질 소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2리, 1989. 3.

17. 앞소리: 흥복순, 여 1931. 뒷소리: 여럿 \* 민요대전 해설에는 ‘가름밭디’를 ‘갈아논 밭에’라고 되어 있으나, ‘기름진 밭에’로 해석해야 될 듯하다.

15) Ja [제주시 삼도동 36] 구비대계 9-2, 맷돌노래(3), 제주시 무근성, 1980. 10. 8. 김영돈 조사, 이달빈(여·75).

16) 제주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전라남도에 제주군으로 속해 있다가 1946년 제주도로 승격해 독립되어 나왔다. 김영돈 외, 『한국의 발원 전라남도』(뿌리깊은 나무, 1992), 37쪽.

Na 유형은 제주에서 14편(14.58%), 호남에서 14편(3.03%)으로 양 지역이 거의 비슷하게 조사되었으나 비중으로 보면 제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이 두 유형은 흥미롭게도 모두 꿩과 관계가 있다.

Ae 유형은 시집살이를 하면서 말을 안 하고 살았더니 병어리라고 쫓겨난 여자가 수풀 속의 꿩을 보고 꿩노래를 부르자 남편이 도로 집으로 데려갔다는 내용이고, Na 유형은 꿩에게 어떻게 사느냐고 묻자 콩을 주워먹고 그럭저럭 산다고 대답하는 것과, 콩을 주워먹고 죽은 장끼와 재혼하게 되는 까투리의 이야기 등을 길게 서술하는 것 등 몇 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뉜다. Ae 유형 속의 <꿩노래>는 ‘노래 속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Na 유형과는 전혀 상관없이 꿩의 습성을 시집식구의 행동에 연관시켜 비유하고 있다.

- A: 꿩꿩장서방 어뎡어뎡 살압디    B: 꿩꿩장서방 어뎡어뎡 살압디<sup>17)</sup>
- A: 옛날옛날 시집살이 흐젠 흐난
- A: 귀막아 삼년 말몰란 삼년
- A: 눈어둑언 삼년 아홉해구년 사난
- A: 시어명이 흐는말씀 아들고라(아들에게)
- A: 답답해언 못살키어 친정에 돌아가블랜(테리고 가버리라고)
- A: 흐난에도(하니까) 그 아들은
- A: 각시달안(테리고) 친정더레 가노랜 흐난(가노라 하니)
- A: 꿩은 아갓단 꿩꿩흐명
- A: 담우터레 올라야지난(올라앉으니) 그메누리 흐는말이
- A: 꿩꿩장서방 어뎡어뎡 살압디
- A: 쫓쫓부리랑 시누리나 주곡
- A: 덕덕날개랑 시어명이나 드리곡
- A: 슬진 뒷다리랑 시아바님이나 드리곡
- A: 간장 석고 곡석은 가심이랑

17) 가창자 B는 가창자 A가 부른 사실을 그대로 따라 부르고 있어 이하 구절은 생략함.

A: 님광 내가 먹어보젠 흐난(먹어보자 했더니)

A: 그말을 들언 낭군님은

A: 그냥들안 돌아오란(돌아와서는) 잘살아 가는고(이하 생략)<sup>18)</sup>

사설은 제주 지역과 호남 지역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위 각편에서는 노래 속에 포함된 노래인 <핑노래>에 “핑핑 장서방 어떻게평 살압디” 하는 관용구가 추가돼 있다는 점이 구별된다. “핑핑 장서방 어떻게평 살압디”는 오히려 Na 유형의 서두에 으레 붙는 관용어구이다. Na 유형에서는 누군가가 핑에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황을 물으면 핑이 자신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아내, 아들, 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살림살이를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과 포수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뉜다.

암핑은 앞의사고 장핑은 뒤에사고

어침저침 들어가니 비엥지 저고리에 배멩지(白明緋) 저고리에

백혜사나다핑 목의 흰 부분) 동전(동정)이요 알롱베기 관대로다

울롱출롱 둘러입고 머들마니다(돌머더기 쌓인 곳에) 아жат더니(앉았더니)

늘매 ㄹ땀(매처럼 날썰) 도독놈은 골골마다 여사온다(엿보면서 온다)

요만흐면 어떻게료 저만흐면 어떻게료

송풀냏되가(수풀에 가서) 기어들고 어기야등당 좃어먹거

한락산이라 가고보니 아들에게는 장구들구 딸애기 노념흔다(놀이한다)

얼씨구나좋다 절씨구 아니노지는 못흐리라<sup>8)</sup>

18) Ae [구좌 2-8(2)] 민요대전 제주, 핑핑장서방, 구좌읍 동김녕리, 1989. 1. 23. A:김경성, 여 1939, B:김순녀, 여 1923. \* 같은 장고 반주에 매기고 받는 식으로 불렀으나 사설내용으로는 핑을 소재로 한 시집살이 노래에 속한다. 육지에도 이같은 부녀요가 가끔 발견되나 이곳의 노래가 더 완벽하다.

8) Na [서귀포 7-4] 민요대전 제주, 핑놀래(핑노래), 서귀포시 법환리, 1991. 7. 14. 강기생(여), 1910.



이 각편에서는 잘 차려입은 장끼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와는 달리 아내 까투리가 불길한 꿈을 이야기하며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콩을 주워먹어 장끼가 죽게 되며, 이후 까투리가 각종 새들의 구혼을 물리치고 결국 다른 장끼와 재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꿩타령>도 많이 전승된다. 이 유형의 경우 주로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전승되는데, 호남보다도 오히려 제주에서 거의 완벽한 서사적 짜임새를 갖춘 각편들이 풍부하게 조사되고 있어 흥미롭다. <꿩타령>은 가사 <자치가>, 판소리계 소설 <장끼전>과 서사적 줄거리를 완벽하게 공유하면서, 평민 여성들에 의해 주로 불렸다는 점에서 다른 갈래들의 원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 갈래 간의 관계와 연원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sup>9)</sup>

Na 유형에서처럼 꿈속에서 죽음을 예견하는 내용은 Nc 꿈에 삼촌이 죽는 것을 본 생선에도 나타난다. Nc 유형은 꿈을 놓고 길몽과 흉몽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Na 유형에서 까투리와 장끼가 꿈에 대해 다르게 풀이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유사성은 Na 유형에 나오는 죽음에 대한 예지몽에 흥미를 느낀 향유자들이 그들이 늘 일상에서 접하는 생선의 죽음으로 대상을 바꾸어 새로운 서사민요를 만들어낸 데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Nc 유형의 한 각편을 들면 다음과 같다.

A: 우럭삼촌 멍심흡서(멍심합서)    B: 우럭삼촌 멍심흡서<sup>10)</sup>

A: 지난밤의 꿈을보난

A: 쉼바농(쇠바늘)도 입에물어뵈데다 [청취불능] 흘쳐도 뵈데다

A: 대구덕(대(竹)구덕)에 잠도자뵈데다(잠들어도 보입디다)

A: 장도칼도 읊의차뵈데다(옆에 차 보입디다)

9) 권영호, 「장끼전의 민요화와 그 의미」, 『문학과 언어』 11(문학과 언어연구회, 1990), 131~158쪽에서는 장끼전이 민요화해 <꿩요>가 생겨났다고 보고 있고, 최해진, 「<장끼전> 작품군의 존재 양상과 전승과정 연구」, 『판소리연구』 30(판소리학회, 2010), 353~395쪽에서는 이와 반대로 민요 <꿩꿩 장서방> 계열이 19세기 초 서사화되면서 초기 판소리가 성립되었고, 이후 판소리 <꿩타령>은 갈가마귀의 등장과 청혼 삽화까지 서사가 확대되며, 가사, 소설, 서사민요, 설화의 갈래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0) 가창자 B는 가창자 A가 부른 사실을 그대로 따라 부르고 있어 이하 구절은 생략함.

A: 눈살도 맞아뵈데다 든불도 쪼아뵈디다

A: 술도 삼잔 마타뵈데다

A: 절도삼배 마타뵈데다 츠마흔난(차마 했더니)

A: 나까도가벳구나(뉘아가 버렸구나)<sup>11)</sup>

Nc 유형은 보통 삼촌과 조카 사이인 우럭과 불락의 대화로 되어 있다. 조카는 꿈속에서 우럭삼촌이 쇠바늘을 입에 물고, 대로 만든 구덕에서 잠을 자며, 장두칼을 옆에 차고, 단불을 쪼인 후에 술과 절을 받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 꿈은 표면적으로는 좋은 자리에 올라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사람에게 잡혀 제사상에 오르게 됨을 예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카는 삼촌이 죽는 꿈으로 해석해 조심할 것을 당부하지만, 삼촌은 이를 무시하고 나갔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뉘이고 만다. 자신들의 손에 잡혀 식탁에 오르는 동물들의 죽음을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그려내는 수법이 기발하고, 이를 인간의 시각이 아닌 동물의 시각에서 그려냄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준다. 동물 간의 대화를 통해 동물 역시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임을 자각하게 하고, 힘없이 죽어가는 동물에 약자인 자신들의 처지를 투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옥죄는 부당한 억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된다.

이상에서 볼 때 제주 지역 서사민요는 육지 지역에서 널리 불리는 광포유형이 제주 지역에 그다지 성공적으로 정착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광포유형이 몇 유형 불리기는 하나 그대로 불리기보다는 제주 지역의 풍토에 맞게 사설이 변개되거나 제주 지역 노동의 환경에 맞게 가락과 가창방식이 변형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대신 육지 지역에서는 널리 전승되지 않는 지역 유형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 향유해 온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평과 관련된 Ae, Na 유형과 Na 유형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Nc 유형이다. Ae, Na 두 유형은 호남 지역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호남 지역보다 더 완벽한 형태로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어서 제주의 지역유형으로 자리매김할 만하다.

11) Nc [구좌 2-8(1)] 민요대전 제주, 우럭삼촌, 구좌읍 동김녕리, 1989. 1. 23. A:김경성(여), 1939, B:김순녀(여), 1923.

## 2. 다른 서사갈래와의 교섭과 융합

제주의 지역유형 대부분은 제주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서사무가나 설화를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생성된 유형으로서 서사민요와 다른 서사갈래와의 교섭과 융합 속에서 창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제주 지역에는 AI 시부모에게 말대꾸하는 며느리, Hh 세 남자를 만난 뒤 애기 낳은 여자, La-2 죽은 후 이승에 다녀간 여자, Lh 망할 조짐이 나타난 집안, 기타 마라도 전설, 기타 진시황 전설, 기타 김녕굴 전설, 기타 새털옷 신랑 등 지역에서 전승되는 서사무가나 설화 등을 서사민요화하여 부르는 유형이 많이 나타난다. 이중 Lh 유형은 <맷돌·방아노래>의 한 대목으로 아예 고정되다시피 한 유형으로서 본래 긴 서사적 짜임새를 갖춘 서사민요였으나 <맷돌·방아노래>에 섞여 불리면서 단편화된 것으로 짐작된다.<sup>12)</sup> 비교적 길게 서술된 각편을 들면 다음과 같다.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가시오름(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강당장집의(강당장 집에)

승시재웨를(홍사조화를) 디리젠 흐난(들어려하니)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세쿨방에(세 사람이 짚는 방아)도 새글렀더라(새안맞더라)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튼은득(털을 뜯은 닭)도 삼십릴가고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벳긴개(가죽을 벗긴 개)도 웅공공이

주끄더라(짓더라) 이여도흐라(이하 생략)<sup>13)</sup>

12) 김현선, 양영자 선생님에 의하면 <가시오름 강당장집> 노래는 성주풀이굿의 마지막 ‘석살림’에서 늘 때 심방의 역량에 따라 불리기도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유형은 서사무가와 교섭 속에서 생성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관련 양상에 대해서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13) Ja [제주시 삼도동 361 구비대계 9-2, 맷돌노래(3), 제주시 무근성, 1980. 10. 8. 김영돈 조사, 이달빈(여), 75.

가시오름에 있는 강당장집에 관한 전설에서 유래된 서사민요이다. 전설 내용을 간추려보면,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가시오름에 대단한 부잣집인 강당장집이 있었다. 매우 인색해서 시주 받으려온 중을 박대했다. 중은 강당장이 말 백 마리를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선산을 이장하면 더 부자가 된다고 속였다. 강당장이 선산을 이장하자 그 뒤로부터 집안이 망하게 되면서 흉사를 예고하는 이상한 조짐이 많이 일어났다. 세 사람이 짙는 세콜 방아가 서로 어긋나서 방아를 짙을 수 없는데다가, 잡기 위해서 뜯어놓은 닭과 벗겨 놓은 개가 울며 도망을 간다는 것이다. 다 삶아서 털과 가죽을 벗겨 놓은 짐승이 울며 도망을 간다는 것은 있기 어려운 일로, 집안이 망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여러 사람이 함께 짙는 방아가 어긋난다는 것은 집안사람들 사이가 갈라지며 먹거리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함을 말한다. 이런 일련의 조짐을 <맷돌·방아노래>로 부르면서 가창자들은 자신들이 작업하는 맷돌·방아가 손발이 적적 맞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삶에 있어서 과한 욕심이 부르는 화를 경계하고 가난하지만 자신들의 삶에 만족할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화가 서사민요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설화적 배경은 사라지고, 근래에는 아예 ‘가시오름 강당장집에 / 세콜방에 세글림세라 / 전생곳은 이내몸 가난 / 으숯쿨방에(여섯이 짙는 방아)도 새맛암서라’와 같은 짤막한 관용어구로 자리잡아 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La-2 죽은 후 이승에 다녀간 여자는 La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의 하위유형이다. La 유형은 저승차사가 여자를 데리러 오는 유형으로 두 개의 하위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La-1 저승차사가 데리러 오자 애원하는 여자는 이승에서의 사건만 다루고 있고, La-2 죽은 후 이승에 다녀간 여자는 저승에 온 여자가 아이들 때문에 울기만 하자 이승에 다녀오게 허락하나 해가 뜨면 돌아와야 한다는 금기를 파기함으로써 다시는 이승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승과 저승에서의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다.<sup>14)</sup> 이는 육지 지역의 서사민요 <애운애

14) 제주 지역에서는 이를 서사무가 <허웅애기 본>으로 전승하는데, 현재는 거의 곳에서 불리지 않고 설화로만 전승되는 것을 필자가 일반인이 서사민요로 부르는 것을 조사 채록하였다. 이 유형은 서사민요와 서사무가의 융합으로 생겨난 서사민요 유형의 좋은 사례이다.

기 노래>와 제주 지역의 서사무가 <허웅애기 본풀이>가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서사민요로 생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La-2는 서사민요에는 없는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고, 서사무가에는 없는 이승에서 저승차사에게 인정을 쓰며 애원하거나 식구들에게 대신 가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이 있다. 창자인 김태일 할머니는 이 노래를 어렸을 때 어머니가 검질 매면서 부르는 것을 들으며 배웠다고 한다.<sup>15)</sup> 제주 지역에서는 심방이 아니더라도 서사무가를 잘 부르는 창자를 흔히 만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비슷한 화소의 서사민요와 서사무가가 결합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이외에 Hh 세 남자를 만난 뒤 애기를 낳은 여자는 성씨 유래담을,<sup>16)</sup> AI 시 부모에게 말대꾸한 며느리는 같은 내용의 민담을 서사민요화한 것이다. 두 유형 모두 일상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규범에서 벗어나거나 어리석은 여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희극적 서사민요에 속한다. Hh 유형은 한꺼번에 세 남자를 보고난 뒤 애기를 낳아 성을 어떻게 붙여야할지 곤란해 도사에게 물어보니 삼수변에 함께 공(共)이라 해서 홍(洪)씨로 지었다는 이야기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도덕적 관념을 깨트리고 있다. AI 유형은 시부모에게 말대꾸를 하는 며느리의 이야기로, 언어의 이중적 의미를 활용해 웃음을 자아낸다. 며느리는 말기를 못 알아듣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시부모의 훈계를 무시함으로써 시부모의 권위를 무색하게 한다. 두 유형 모두 겉으로는 주인공 여자의 어리석음을 나무라는 듯하지만, 안으로는 일상을 억누르고 있는 규범과 권위로부터의 일탈과 전복을 품고 있다. AI 유형의 한 각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5) 필자가 제주도 현장조사(2012. 8. 13.~8. 16.)에서 김태일(여, 73) 할머니에게 직접 조사한 것으로, 이 유형의 계열별 특징에 대해서는 줄고,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의 특징과 의미 - <애운애기>, <허웅애기> 노래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91~120쪽 참조.

16) Hh [제주시 삼도동 41(1)] 구비대계 9-2, 맺들노래(4), 제주시 삼도동 무근성, 1980. 10. 8. 김영돈 조사, 김금련(여, 86).

메누리야 일어나 나라  
 니 또꾸망(똥구멍)에 해 비추웁저(해 비춘다)  
 아이고 어멍아(어머니여) 거 무신 말  
 하락산(한라산) 고고리랑(꼭대길랑) 어디 비여 똥(버려 두고)  
 나 또꾸망에 해 비추웁수광(해 비추니까)  
 아이고 이년아 흔 말만 짙여 도라(한 말만 저 달라)  
 이제 나 나이 멧 나이쟁(몇 나이오)  
 물보리 열 말씩은 짙으쿠다(뭇보리 열 말씩은 짙겠어요)<sup>17)</sup>

같은 내용의 설화에서는 대체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깨우며, ‘해가 똥구멍에 비친다’고 하자 며느리가 ‘제 똥구멍이 동해바다인가요’라고 되묻는다.<sup>18)</sup> 설화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일컬어질 수 있는 보편적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각편에서는 이를 제주 지역의 지명인 ‘한라산’, ‘동산이물’ 등으로 전환하여 제주 지역의 노래로 바꾸어놓고 있다. 보편적으로 이야기되는 설화가 지역의 서사민요로 전환돼 불린 것이다.

기타 유형으로 분류한 <마라도 전설 노래>, <진시황 전설 노래>, <김녕굴 전설 노래>, <새털옷 신랑 노래> 등은 모두 신화나 전설 등을 서사민요화한 것이다. 이중 <마라도 전설 노래>, <진시황 전설 노래>, <김녕굴 전설 노래> 등은 모두 제주 지역과 관련하여 내려오는 전설을 서사민요로 부른 것이다. 이들 전설을 서사민요로 창작해 <땃들·방아노래>나 <노젓는 소리>로 부름으로써 오랜 시간 앞소리 사설을 수월하게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17) AI [대정읍 영락리 478]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땃들·방아노래, 홍성숙, 여 50, 대정읍 영락리, 김영돈 조사, \* 김영돈의 사설 각주에는 ‘흔 말만 짙여도라’를 ‘한 말만 짙어 달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한 말만 저 달라’로 해석해야 하리라고 본다.

18) [여주군 금사면 설화 10] 구비대계 1-2, 말대꾸 잘하는 며느리 궁리, 1979. 8. 13. 서대석 조사, 신흥준(남, 73). “며느리가 말 대꾸를 어떻게 잘하는지, “며늘아가.” / “예” / “그저 자니?” / “웬걸요 속곳 벗어 덮구 자죠.” / “그거 잘한다.” / “아니, / “해가 똥구녕 치민다.” / “그것두 시아버지두 무식하지.” / “해가 똥구녕 치민다.” / “아 제 똥구녕이 동해바단가요.” / “잘한다.” / “자라는 물 속에 있지요.” / “용타?” / “용은 하늘에 있죠.” / “너두 이년아 한 말 지러브나.” / “한 말 지기켜녕 두 말 이구두 다녔다오.” / “웃음”

<새털옷 신랑>의 경우도 전국적으로 설화로 전승되고 관북지방에서는 서사무가 <일월노리 푸념>으로 전승되던 것이다. 제주 지역에서는 설화로만 전승되고 있어서, 창자가 설화를 바탕으로 창작한 것인지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서사무가를 기억해 부른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유형은 생성의 정확한 경로보다는, 이야기로 전승되는 설화가 노래로 창작·전승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서사민요 생성의 한 방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재 설화로 기록되어 전승되는 많은 신화들과 노래의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는 좋은 방증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들 유형은 비록 독립적인 서사민요 유형으로 정착할 수 있을 만큼 널리 불리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서사민요의 고대적, 원형적 창작·전승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준다.

####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제주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양상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폈다. 그간 제주 지역 서사민요의 실상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바 없어, 제주 지역은 마치 서사민요의 불모지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이에 제주 지역에는 과연 서사민요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육지 지역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제주 지역 서사민요의 유형별 분포양상과 특징을 살핀 뒤, 그 전승적 특질을 광포유형의 변형과 지역유형의 창의, 다른 서사갈래와의 교섭과 융합 양상을 통해 고찰하였다.

제주 지역에서 불리는 서사민요 유형은 그리 다양하지 않다. 지금까지 필자가 추출한 서사민요 유형 총 61개 유형 중에서 22개 유형만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도 1~2편만 전승되는 것이 13개 유형이어서 이를 제외한다면 제주 지역에는 9개 유형 정도만 서사민요 유형으로서 비교적 안정되게 전승된다. 따라서 제주 지역에서는 육지 지역만큼 다양한 서사민요 유형이 전승되지 않으며, 그

대신 일부 소수 유형이 집중적으로 불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유형은 대부분 한 가지 사건에서 일어난 특정한 장면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지는 단편 서사민요 유형에 속한다. 이는 서사민요를 육지 지역에서는 대체로 혼자 길쌈을 하거나 밭을 매면서 독창으로 부르는데 비해, 제주 지역에서는 멧돌을 돌리거나 방아를 찧거나 노를 젓는 등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작업하면서 선후창 또는 교환창으로 부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 지역에서도 육지 지역과 마찬가지로 시집살이 관련 서사민요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나, 육지 지역과는 달리 심각한 고난을 다루는 비극적 유형보다는 희극적이며 해학적인 유형이 많이 불린다. 이는 혼인을 하면 부모로부터 분가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제주 특유의 가족 구조와 생활양식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오히려 제주 지역에서는 육지 지역에 비해 첩의 문제를 다룬 <첩의 집을 찾아간 본처> 유형이 많이 전승되는데 이는 제주 지역에서는 시집식구와 며느리의 갈등보다 남편을 둘러싼 첩과 본처의 갈등이 더 컸음을 보여준다. 한편 비록 활발하게 전승되지는 못했지만 <죽은 후 이승을 다녀간 여자(허웅애기)>, <마라도 전설>, <진시황 전설>, <김녕굴 전설>, <새털 옷 신랑> 등 지역에서 전승되는 신화·전설이나 <시부모에게 말대꾸한 며느리>, <세 남자를 만난 뒤 아이를 낳은 여자>와 같은 민담 등 다른 서사갈래와의 교섭과 융합 속에서 서사민요 생성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로 볼 때 제주 지역 서사민요는 육지 지역 서사민요와의 교섭 속에서 창작·전승되기보다는 육지 지역 서사민요와는 별도의 독자적 서사민요권을 형성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육지 지역에서 널리 전승되는 광포유형이 몇 유형 있기는 하지만, 그리 활발하게 불리지 못했으며, 부른다 할지라도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변형함으로써 지역문학으로서의 개성을 마련했다. 오히려 제주 지역 서사민요는 서사민요보다는 다른 서사 갈래와의 교섭과 융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즉 육지 지역에서 널리 전승되는 광포유형 설화를 변형함으로써 지역의 서사민요로 재창조할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의 설화나 서사무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유형을 창작하는 데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는 서사민요가 풍부하지 않았던 제주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서사민요를 창출했던 방식으로,



제주 지역 여성들의 뛰어난 문학적 창작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 『백록어문』 1집~19집(학술조사보고),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1986~2004.
- 『한국구비문학대계』(총85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 『한국민요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편, (주)문화방송, 1993~1996.
- 김사엽 외,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8.
-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상(자료편), 민속원, 1965초판, 2002 개정판.
- 김영삼, 『제주민요집』, 중앙문화사, 1958.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임석재 전집 9』 전라남도·제주도 편, 1993.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진성기, 『남국의 민요:제주도민요집』, 제주민속연구소, 1958 초판 1991 7판.
- 진성기 편,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59초, 1964재.
- 진성기, 『탐라의 신화』, 민속원, 1980.

#### 2. 논저

-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연구 :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권영호, 『장끼전의 민요화와 그 의미』, 『문화과 언어』 11, 문화과 언어연구회, 1990.
-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 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3.
- \_\_\_\_\_, 『제주도 민요연구』 하(이론편), 민속원, 2002.
- 김영돈 외, 『제주의 민속』 I, 세시풍속, 통과의례, 전승연희, 제주도, 1993.
- 김영희, 『비극적 구전서사 〈액운애기〉 연구』,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 김현선, 『〈허궁애기본풀이〉의 정체와 기여』, 경기대학교 대학원생 세미나 발표요지, 2012. 10. 27.
- 문순덕, 『통과의례 속의 제주여성 풍속 전승양상』, 『제주여성 전승문화』, 제주도, 2004.
- 박경수, 『한국민요의 기능별 분류체계』,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I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서영숙, 『우리 민요의 세계』, 도서출판 역락, 2006.

- \_\_\_\_\_, 『전남 서사민요의 유형분류와 존재양상』, 『한국민요학』 13, 한국민요학회, 2003.
- \_\_\_\_\_, 『충청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양상과 문화적 특질』, 『어문연구』 58, 어문연구학회, 2008.
- \_\_\_\_\_, 『한국서사민요의 낱실과 씨실: 우리어머니들의 노래』, 도서출판 역락, 2009.
- \_\_\_\_\_, 『영남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적 특질』, 『고시가연구』 26,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 \_\_\_\_\_, 『서사민요의 지역문화적 성격: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32, 2012.
- \_\_\_\_\_, 『한국 서사민요에 나타난 지역문학의 창의와 융합 연구: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 \_\_\_\_\_, 『서울·경기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양상과 문화적 특질』, 『한국민요학』 35, 한국민요학회, 2012.
- \_\_\_\_\_, 『〈서승차사가 테리러 온 여자〉 노래의 특징과 의미: 〈애운애기〉, 〈허운애기〉 노래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 신연우, 『서사무가 〈초공본풀이〉의 짜임새와 미적 성취』, 『구비문학연구』 31, 2010.
- 양영자, 『제주민요 시집살이노래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_\_\_\_\_,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양영자, 『제시풍속과 전승민요』, 『제주여성 전승문화』, 제주도, 2004.
- 양영자 외, 『제주여성 전승문화』, 제주도, 2004.
- 이성훈,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2005.
- 조동일, 『서사민요 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0초판 1979 증보판.
- 조영배, 『제주도 민요의 음조직과 선율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4.
- \_\_\_\_\_, 『제주도 민요의 음악양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6.
- \_\_\_\_\_, 『제주도 노동요 연구』, 도서출판 예술, 1992.
- 최혜경, 『제주도 민요의 서술체 구성에 관한 고찰』, 『탐라문화』 1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1.
- \_\_\_\_\_, 『제주전승동요』, 집문당, 1993.
- 최혜진, 『〈장기전〉 작품군의 존재 양상과 전승과정 연구』, 『관소리연구』 30, 관소리학회, 2010.
- 현승환, 『제주인의 일생』, 국립민속박물관, 2007.
- 『한국의 발견 - 제주도』, 뿌리깊은 나무, 1992.
- 『한국의 발견 - 전라남도』, 뿌리깊은 나무, 1992.

## Study on Transmission Aspects in Folk Ballads of Jeju Island

Suh, Young-sook\*

This paper investigated the transmission aspects in folk ballads of Jeju Island focused on the distribution of type, the transformation of nation-wide type and the creation of oicotype. Contrasting with the land, various types of folk ballads haven't transmitted in Jeju Island. Instead of that, a few type have transmitted intensively. These types are mainly short narrative songs, which are centralized on the scene of an event. Moreover they are comic rather than tragic. These characters have been derived not only from the independent family structure and life style of Jeju Island but also the working and singing method.

I assumed that the folk ballads of Jeju Island have been not affected but formed separately from those of the land. Though there are some nation-wide types, they are not transmitted actively. They have been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local trait of Jeju Island, so they have had characteristics as the local literature. The folk ballads of Jeju Island have been affected and merged with the other narrative genres more briskly than the other folk ballads of the land. They have been localized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folk-tale, the alteration of the function and the change of the singing method. Women of Jeju Island have created and transmitted folk ballads through the creation of oicotypes and the transformation of nation-wide types. These transmission aspects show the outstanding ability of Jeju Island's women in the creation of literature.

---

\* Hannam Univ.

Key words : Jeju Island, Folk narrative song(Folk Ballads), Transmission, Nation-wide type, Oico-type(Local type), Local Literature, Narrative Genre, Folk-tale, Shaman` s narrative song, Women

〈이 논문은 2월 20일 투고되어 3월 10일~4월 10일까지 심사기간을 거쳐  
4월 20일 게재 확정되었음〉

K C I